

성탄절 후 첫 번째 / 송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up>ST</sup> SUNDAY AFTER CHRISTMAS

주후 2021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5 장 “예수 앞에 나오면” (새28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2 번 요한일서 (1 John) 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계시록 (Revelation) 7:9-12**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나의 생명되신 주” 찬양대

설 교 Sermon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김일선 목사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and to the Lamb**)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90 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새43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심령에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은 죄를 다 깨닫지도 못했고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며

탄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다시금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어주시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용서받은 자로,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51: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한글개역 **계7:10**)

“And they cried out in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 (NIV **Revelation 7: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26 (주일)	12/27 (월)	12/28 (화)	12/29 (수)	12/30 (목)	12/31 (금)	1/1 (토)
	대하31	대하32	대하33	대하34	대하35	대하36	창1
본문	계17	계18	계19	계20	계21	계22	마1
	속13	속14	말1	말2	말3	말4	스1
	요16	요17	요18	요19	요20	요21	행1

송/구/영/신/예/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송구영신예배 (12/31금 오후11:00)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창12:1-5)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4화-1/8토 오전6:30)	주제 - “처음 마음으로”

지난 주일(12/19)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4) –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9-16)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서, 성탄 (성육신)을 언급한 것입니다(참고, 요일4:10).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요일4:12)고 까지 말씀했습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을 통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암울한 중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탄 (Christmas)’은 죄로 인해 공공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얼음장 같이 차디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시는 ‘하나님의 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